

여수, 지난해 민원서비스 '전국 1위'

여수시 민원서비스가 전국 자치단체 1위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역시도,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며 진행됐다.

여수시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법정민원, 민원실 환경,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처리 수준 등 전 분야에 걸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 전용 창구'와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 운영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승택 기자 ost6002@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대통령표창' ...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 받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법정민원·국민신문고 등 전 분야 최우수 평가



여수시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여수시 제공

제410차 민방위의 날 맞아 구례, 20일 화재 대피훈련

구례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 국민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 대구 사우나 화재 등 대형 화재 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내 주민 대피 훈련으로 구례군청,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아파트(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요양병원 등이 의무 참여하고 구례군장애인복지관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2시 정각에 라디오, TV를 통해 화재를 가정한 상황이 전파되면 건물 내 주민들은 유도요원 안내에 따라 계단 등 비상구를 이용해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오일시장에서 경찰서 로타리까지 구간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차 골목 진입 훈련이 이루어진다.

/구례=심건식 기자 sgeonsik@

순천, 제2기 명예 주민자치위원 위촉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39명에 위촉장 전달 주민자치 발전 위해 전국서 유일하게 시행



시는 최근 '제2기 순천시 명예 주민자치위원 위촉식'에서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3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최근 '제2기 순천시 명예 주민자치위원 위촉식'에서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3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명예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주민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국에서 순천시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난 2017년 12월 순천시·순천대학교·주민자치위원장의제가 협약을 체결하

고 2018년 제1기 명예 주민자치위원 35명을 위촉했으며, 삼산동 등 6개동에 편성돼 주민자치 활동을 펼쳤다.

시는 지난 1월 순천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7개동 39명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으며, 최근 위촉식을 통해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향동 명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순천대학교 공대영 학생은 "학교에서 책임으로만 접한 주민자치 활동을 직접 현장에서 추진하게 돼, 긴장되면서도 설렌다"며 "저의 작은 생각이 주민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학생들이 지역을 위해 고민하는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에 합류하게 됨을 축하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정책이 더 나은 순천시를 만들기 위한 자양분이 되도록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주민자치 품부리 사업 및 따순마을 사업에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등 지역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순천=오승택 기자 ost6002@

"청정지역 보성 문덕서 함께 살아요"

여가문화·건강한 삶 등으로 귀농 농가 ↑

보성군 문덕면은 1987년 주암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되면서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친환경 농업으로 고소득 농업이 가능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귀농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맑은 물과 호수를 따라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문덕면은 최근 목욕장, 체육센터, 복지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며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꼽히며 뛰어난 자연경관과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등이 좋아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보성군은 2016년부터 귀농·귀촌인, 청년세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LH공사와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입주를 목표로 귀농인 맞이에 한창이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운영되는 '면민 행복그리기 교실'에서는 문덕면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풍물, 악기, 요가, 색소폰,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6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며 주민들의 여가 생활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드민턴 동호회장 임00씨는 "저녁시간에 운동도 하고 회원들과 친목도모도 할 수 있어 생활에 에너지가 된다"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덕면은 친환경, 감성, 건강한 삶이 조화를 이루는 농어촌 지역을 만들어가며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곡성, 소규모 농가 저온 저장고 지원

업체 공모·농가 설명회 개최로 전문적 시공 기대

곡성군이 소규모 원예 재배농가를 위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규모 원예 재배농가의 경우 유통망이 체계적으로 조직돼 있지 않아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일정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동종의 작물일 경우 수확 시기가 비슷한 한 번에 많은 물량이 출하될 경우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하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이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세농들에게는 저온저장고 시설 구비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과수 및 채소 등을 재배하는 소규모 원예 재배농가들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한도는 저장고의 크기에 따라 9.9㎡(3평형)의 경우 600만원, 33㎡(10평형)의 경우 2천만원까지이며, 곡성군에서 해당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곡성군은 수확철이 다가오기 전인 6월까지 설치를 조기 완료한다는 방침 하에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연초에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 59명의 대상 농가를 확정했다.

또한 양질의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전문 시공업체를 공모해 12개의 시공업체 선정도 마쳤다.

농가들은 선정된 시공업체 중 설치기준, 금액 등 원하는 조건을 협상해 직접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에는 군청 대동마루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 등 사업추진 요령을 설명했다.

이어 시공업체별로 제품 홍보가 진행됐다. 농가들은 제품의 사양과 설치 조건 등에 대해 질문하며 열린 대화를 주고 받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가와 시공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저장고 설치로 농가들이 원하는 출하시기를 조절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기사제보 2580@jndomin.kr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내가 지키는 가스안전
행복되어 돌아온다